

한국사회에서의 사람 판단의 증거: 된 사람과 난 사람의 평가를 중심으로¹⁾

한 규 석 최 송 현

정 욱 배 재 창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전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한국사회에서 사람에 대한 평가는 어떠한 증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보기 위하여 두 가지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1에서는 ‘된/못된’ 사람과 ‘난/못난’ 사람에 대한 사람들의 판단기준을 보기 위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방형의 질문을 하였다. 된 사람의 판단은 대인관계적 측면과 삶의 자세라는 두 가지 증거의 복합적인 고려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못된 사람의 판단은 대인관계 증거에 초점을 두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난 사람의 판단은 능력과 삶의 자세의 두 가지 증거가 고려되나, 못난 사람의 판단은 삶의 자세에 초점을 두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2에서는 표적인물의 삶의 자세(+/-)와 능력(+/-)의 증거정보를 배합한 4가지 유형의 표적인물로 구성된 설문 A, 그리고 삶의 자세와 대인관계(+/-)의 증거정보를 배합한 4가지 유형의 표적인물로 구성된 설문 B를 마련하여 남여 대학생에게 제시하고 평가를 하게 하였다. 설문 A의 분석 결과는 인물에 대한 평가에서 삶의 자세가 중요하며, 삶의 자세가 긍정적일때 능력 정보가 평가 차이를 가져오지만 삶의 자세가 부정적이라면 능력정보는 별 영향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B의 분석결과는 삶의 자세와 대인관계의 정보가 비슷한 정도로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준다. 이같은 결과는 대인관계를 중시하는 한국의 문화가 인물평가에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주요어: 인물평가, 대인지각, 문화심리, 도덕성, 능력, 대인관계, 삶의 자세, 한국문화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교류하게 되는 상대방에 대하여 평가를 하게 마련이다. 이 평가를 바탕으로 상대방과의 교류를 진전시키며 교류행위를 조정한다. 사회심리학에서 인물 평가에 대한 연구는 핵심적인 주제로써 인상형성과 대인지각의 영역에서 주로 다루어져 왔다. 유명한 S. Asch의 연구가 1946년에 나온 시점을 전후해서 대인지각의 연구는 중요한 영역으로 취급되어 왔다. 국내에서도 1960년대부터 이 분야의 연구가 나오고 있으며, 1970-80년대에는 가장 많은 관심이 사회심리학자들에 의해서 기울여진 분야이다(한규석, 1996). 이 주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학자들의 관심거리이었다. 첫째는 사회생활에서 사람들이 만나는 상대방에 대하여 갖게 되는 인상이 교류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인상이 어떠

1) 본 논문의 초고를 보고서 세밀하게 비판을 해 주신 심사위원 B와 C에게 중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한다. 두 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였으나, 충분하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여긴다. 본 고와 관련된 교신은 한규석(ghan@chonnam.ac.kr) 에게로 하기 바람.

한 인지과정을 통하여 형성되는 지에 대한 정보처리적 측면에서이다. 이러한 관심사를 지닌 연구자들은 보편적 심리과정의 규명에 관심을 지닌 전통적 실증주의적 과학관을 취하여, 사물지각에 대한 지각심리학적 접근을 대인관계 영역에 도입하여 지각대상이 사람일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의 법칙을 연구하였다. 그래서 대인지각 혹은 인물지각이라는 용어의 채택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고, 이런 용어는 심리학자들이 염원하고 있는 심리학의 과학화 정신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최상진, 한규석, 1998). 대인지각이라는 용어에서 볼 수 있듯이 인간에 대한 판단을 사물에 대한 판단과 마찬가지로 표적인물에 대한 정보를 접하였을 때 객관적이며, 몰가치적으로 상대에 대한 인상을 형성하는 것으로 여겨왔다. 그래서 이 분야의 연구들은 표적인물에 대한 다양한 특성을 임의로 제시하고 이들 특성들이 어떠한 차원으로 묶이며, 종합되어 인상을 형성하게 되는지의 기제를 정보처리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왔다(Anderson, 1965 등). 비록 표적인물에 대한 특성이 각기 별개의 것으로 제시되지만, 각 특성이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특성으로서가 아니라 인물평가적 함의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서로 영향을 주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후광효과, 초두효과, 신근성효과, 내현성격이론 등과 같은 대인지각의 현상이 정리되었다.

대인지각에 대한 또 다른 관점은 문화심리적 시각에서 나타난다. 정보처리의 보편적 과정에 대한 관심과는 달리 최근에 전개되고 있는 문화심리학은 문화와 심리현상을 불가분의 관계로 보고 심리학 연구에서 문화의 역할에 관심을 보일 것을 촉구하고 있다(김정운, 한성열, 1998; 최상진, 한규석, 2000; Shweder, 1990 등). 문화심리학에서는 문화보편적인 심리과정에 대한 관심보다, 각 문화권에서 작용하는 심리의 내용적 측면, 사람들의 동기와 의도성, 사회문화적 규범의 내용 및 이들이 생활에서 작용하는 방식에 관심을 지닌다. 문화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과거의 대인지각의 연구는 과정의 규명에 경도되어, 문화권에 관계없이 작용하는 공통적인 원리의 규명에 관심을 두어 왔다는 요약이 가능하다. 문화심리학적으로 관심 있는 것은 각 문화에서 나타나는 사람에 대한 평가의 내용이다. 즉 바람직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한 평가는 어떠한 준거가 적용되어 이루어지며, 이러한 준거들이 각 문화권에서 어떠한 비중을 지니고 인물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지가 우선적인 관심거리가 될 것이다.

인물평가의 두 차원

사람들에 대한 평가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차원은 사람에 대한 도덕성(morality)와 능력(competence)에 대한 판단으로 요약될 수 있다. 도덕성에 대한 판단은 상대방의 인간됨됨이에 대한 판단으로써 이는 상대방이 믿고 신뢰할 만한지, 양식을 지닌 사람인지에 대한 판단이다. 이의 판단과 더불어 상대방에 대한 신뢰감, 친근감이 변화함을 사람들은 의식 무의식적으로 경험한다. 한국인들의 일상 언어로 표현한다면 도덕성의 판단은 '(잘)된/못된' 차원에서의 판단이라 볼 수 있다. 인물평가의 또 다른 축은 상대방의 능력에 대한 판단으로써, 상대방이 어느만큼 재능과 능력을 갖추었는지, 성공 혹은 성취를 할 수 있는지, 주어진 과제, 역할을 잘 수행해 낼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이다. 우리의 일상에서 이 판단은 '(잘)난/못난' 차원에서의 판단이라고 볼 수 있다(최상진, 2000 참고).

생활 속에서 이 '된/못된' '난/못난'의 판단은 각기 인간관계의 영역과 업무수행의 영역에 대한 판단이다. 여러 연구들이 이 두 차원이 각기 독립적이며 사람 평가의 핵심 차원임을 제시하고 있다(조궁호, 1990 고찰; Kinder & Sears, 1985; Rosenberg & Sedlak, 1972; Wojciszke, 1994). 아마도 가장 대표적인 이론으로 리더십에 대한 과제중심과 관계중심의 이

차원 리더십 이론을 들 수 있다(Blake & Mouton, 1964). 사람들은 두 차원 모두에 능하거나, 취약할 수 있고, 어느 한 차원에만 능할 수 있다고 간주된다. 이는 두 차원이 독립적이라고 상정되기 때문이다.

심리학적 연구의 변인으로 보았을 때 이 두 차원은 인물평가의 결과 변인이기도 하고 영향변인 이기도 하다. 결과변인으로 작용하는 경우에는 두 차원이 각기 별개의 것이며, 각기가 그 자체만으로 궁극적인 평가로 작용하는 경우이다. 상대방이 ‘된/못된’ 사람인지, 혹은 ‘난/못난’ 사람인지를 판단하는 경우가 그러하다. 우리가 상대방을 가까이 하고픈 사람인지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는 경우에 상대방을 ‘된/못된’의 차원에서 판단한다. 그러나 과제수행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을 ‘난/못난’의 차원에서 판단할 것이다. 이 경우들에서는 각 차원의 판단이 어떠한 준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지가 심리학적으로 밝혀져야 할 것이다. 한편, 두 차원은 상대방에 대한 총체적 판단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서 작용하기도 한다. 이 총체적 판단은 일반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호오감, 접근성을 말하며, 이 경우에 두 차원은 총체적 판단을 위한 준거들로서 작용하기도 한다. 몇 연구자들(Wojciszke, Bazinska, & Jaworski, 1998)은 이 총체적 판단이 도덕성 차원에 의해서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상정하고 있다.

도덕성과 능력에 대한 판단이 매우 중요한 만큼 사람들은 이들의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들을 모색한다. 최근에 폴란드에서 행해진 한 연구(Wojciszke 등, 1998, 연구 1)에서 사람들에게 타인에 대하여 가장 알고 싶은 특징 열 가지를 적게 하여 집계한 결과 가장 공통적으로 많이 나타난 특성은 성실성(sincere), 솔직성(honest), 쾌활성(cheerful), 포용성(tolerant), 충직함(loyal), 똑똑함(intelligent), 진실성(truthful), 반이기성(unselfish), 신뢰성(reliable), 친절성(kind)으로 나타났다. 이중 두 개(똑똑함, 쾌활성) 만이 능력과 관련된 것들이고, 나머지 여덟 개는 도덕성과 관련된 것들이다. 이는 상대방의 도덕성에 대한 정보가 타인 평가에서 훨씬 중요하게 작용하리라는 것을 시사한다. 이 가설은 후속된 연구(Wojciszke et. al., 1998, 연구 4)에서 지지되었다. 즉 연구자들이 표적인물에 대한 도덕성과 능력에 대한 정보를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것으로 제시하였을 때 응답자들의 평가는 도덕성 정보에 의해 크게 좌우되었지, 능력에 대한 정보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물평가에서의 문화 차이

상대방의 평가에 쓰이는 정보들은 고립되어 하나씩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의 교류에서 경험하는 사건들과 접하게 된 다양한 정보들 속에 묻혀 있으므로, 지각자가 필요한 정보들을 식별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어떠한 정보들을 중시하여 평가를 끌어내느냐 하는 것은 사람들이 처한 문화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즉 정보의 취사선택과 종합과정에 문화적 특성이 작용하기 마련이다. McArthur와 Baron(1983)가 제시한 대인지각의 생태학적 모형이나, Markus와 Kitayama(1991)가 제시한 독립적 자아-관계적 자아문화(혹은 개인주의-집단주의 문화) 모형은 각 문화권에서 인간과 사회를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대인지각의 양상이 또한 문화에 따라 달리 나타남을 이해하는 틀이다(자세한 논의는 조궁호, 1996, 한규석 1991을 참조바람).

이들 모형에 따르면,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의 자율성과 자립 능력을 중시하므로, 사람을 평가하는 경우에도 이 점을 중시하고,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이 주위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지, 자신의 맡은 역할을 잘 해내는지에 대한 평가를 중시한다. 경험적 연구 결과, 타인의 성격을 평가하는 차원으로 미국인에게서 나타난 외향성(사교적, 솔직 등), 호

감성(선량, 협동 등), 신뢰성(믿음직, 인내 등), 정서적 안정성(침착, 안정 등), 세련성(예술적, 세련 등)의 다섯 차원이 중국인에게서는 호감성과 신뢰성이 사회적 도덕성으로 묶였으며 아울러 가장 중요한 차원인 것으로 나타났다(Yang & Bond, 1990). Bond와 Forgas(1984)는 중국인들은 호감성과 신뢰성을 친밀한 관계맺음에서 가장 중요한 특성요인으로 여기지만, 호주인들은 외향성과 정서적 안정성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여김을 보였다. 학생들에게 친한 친구의 성격을 기술하도록 하여 분석한 결과, 중국인들은 친절함, 타인을 배려함, 상냥함, 겸손함, 이타적임, 정직함, 노력 등 대인관계적 특징을 많이 드는 것에 반해, 미국인들은 유쾌함, 열성적임, 인기있음, 친절함, 사교적임, 지도력 있음, 재미있음, 잘 생김 등의 개인적 특성을 많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Kuhlen & Lee, 1943; 조궁호 1996에서 인용). 이러한 결과는 인물평가에서 작용하는 핵심특질이 개인주의 문화권에서는 「솔직성, 자립심, 자기주장」 등이며,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는 「겸손, 협력심, 원만성」 등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Barnlund, 1975; Triandis, 1989 참조). 두 문화권에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난 특징들은 도덕성과 능력 차원을 포함하는 준거들이지만, 능력보다는 도덕성 차원의 것이 더욱 많다. 그러나, 도덕성 차원에서도 개인주의 문화권에서는 삶에 대한 자세, 철학, 태도의 성격이 강하고,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는 대인관계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이같은 차이가 상정되는 것은 대인지각 현상이 지각자가 생활하는 문화에서 적응적인 기능을 지녀야 하며, 이 적응을 도와주는 내용을 중심으로 인물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기 쉽기 때문이다.

본 연구

본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한국사회에서 사람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의 행태를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안다는 것은 해당 사회에서 어떠한 인물형이 규범적으로 내재화되어 있는지를 알려주며, 이는 사람들이 지향하는 삶의 모습을 알려주어, 그 사회의 문화심리적 특징을 드러낼 것이다. 비교문화적인 연구들에서는 한국사회를 포함한 동아시아 문화를 집단주의 문화권이라고 분류하고 있다(Hofstede, 1980). 그러나 가치의 변화에 관심을 지니고 설문조사를 행한 여러 연구들은 한국사회를 개인주의 문화로 변화가 많이 진행되었다는 자료들을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임희섭, 1994; 차재호, 정지원, 1993; 한규석, 신수진, 1999 등). 가치관에 대한 직접적인 설문이 아니라 행태(예, 우리성 혹은 자아의 특징이나 규범적 행위 양상)를 파악하여 비교하는 연구들은 여전히 한국인이 집단주의(혹은 관계주의) 문화권의 특징을 지니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Choi, Kim, & Choi, 1995; Han & Park, 1995; Rhee, Uleman, Lee, & Roman, 1995). 행태연구는 설문조사의 응답에서 크게 작용하는 사회적 바람직성 효과가 작용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한국사회의 문화심리적 특징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기존의 비교문화심리학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한국사회의 집단주의적 문화특징이 인물평가에서 작용한다면, 한국인들은 대인관계의 측면을 인물평가에서 중요한 준거로 여길 것으로 상정할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 인물평가의 준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두 단계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의 첫 단계에서는 평가의 보편적 차원으로 여겨지는 도덕성과 능력에 대한 평가가 국내에서는 어떠한 준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연구자들은 한국사회에서 사람에 대한 일상적 평가 언어로서 ‘된/못된’과 ‘난/못난’이 많이 쓰이는 것에 주목하여, 이들 차원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준거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이들 생활 속의 언어

가 각기 도덕성과 능력의 부분을 짚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을 끌어내기에 적합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첫 단계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두 번째 단계에서는 표적인 물에 대한 준거정보를 실험적으로 변화시켜 제시함으로써, 인물에 대한 평가에서 주로 작용하는 준거가 무엇인지를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 1

연구 1에서는 한국사회에서 일상적으로 쓰이는 인물평가의 차원이 ‘(잘)된/못된’과 ‘(잘)난/못난’이라는 것에 착안하여 된 사람, 못된 사람, 난 사람, 못난 사람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무엇인지, 이러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 고려하는 준거요소들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방 법

연구 1을 위해서 두 가지 조사를 수행하였다. 첫 조사에서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신이 주위에서 만났거나, 들은 사람으로 “이 사람은 된(혹은 못된, 잘난, 못난) 사람이구나”라고 느낀 사람에 대하여 왜 그렇게 느꼈는지 그 이유를 기술하도록 하였다. 그 밖에도 관련된 질문이 포함되었다. 이 조사에서는 123명의 전남대학교 학생이 참여하였고, 이중 무응답이 많은 4명의 자료를 뺀 119명의 응답이 분석되었다. 성별로는 남자 64명, 여자 48명, 미응답자 7명이었다. 조사는 2001년 6월에 이루어졌다.

두 번째 조사는 첫 조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행하였다. 첫 연구에서 빈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중복적 의미가 약한 특성진술어 30개와 5요인 성격을 반영하는 특성 형용사(Trapnell & Wiggins, 1990) 87개와 기타 형용사 5개를 추가하여 학생들에게 제시하고 각 특성진술문이 ‘된’ 사람의 판단에 쓰이는 것인지, ‘난’ 사람의 범주 판단에 쓰이는 것인지를 판단하도록 하였다. 각 응답범주에는 ‘잘된(난)’, ‘못된(난)’, ‘무관함’의 세 가지 선택지를 제시하고 택일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각 특성이 한국사회에서 얼마나 바람직한 것인지를 7점척을 이용하여 판단하도록 하였다. 이 조사에는 첫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대학생 121명의 자료가 분석되었다. 성별로는 남자 58명, 여자 60명, 미응답자 3명이었다. 조사는 2001년 9월에 이루어졌다.

결 과

첫 조사에서 나타난 네 가지 인물 유형에 대한 응답을 의미에 따라 나열하고 유사한 의미의 것을 묶는 방식으로 분류하였다. 복수응답이 가능하였기에 빈도수의 합은 응답자 수를 초과하게 된다(표 1과 표 2).

두 번째 조사의 결과를 제시하기 위하여 지수를 산출하였다. 즉 제시된 해당특성이 ‘잘난(혹은 잘된) 사람’의 특성이라고 분류한 사람 수에서 ‘못난(혹은 못된) 사람’의 특성이라고 분류한 사람 수를 빼서 각기 난지수와 된지수를 산출하였다. 따라서 지수가 양수로 커질수록 해당 특성이 잘난(혹은 잘된) 특성의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분류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음수로 커질수록 해당 특성이 못난(혹은 못된) 특성의 것으로 분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된

지수와 난지수 중 어느 한쪽으로 수치가 크게 나타난다면 그 특성이 ‘된/못된’ 혹은 ‘난/못난’의 한 가지 범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분류하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의 조사 연구결과가 대동소이하므로 이를 구분하되 같은 표에서 제시하며 네 가지 유형별 특성을 기술하고자 한다(표 1과 표 2). 표에서 항목들은 지수의 크기에 따라서 제시하였다.

네 가지 유형의 특성

된 사람의 특성: 된 사람의 특징으로 사람들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예의바른’, ‘상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겸손한’, ‘사려 깊은’, ‘대인관계를 두루 잘 맺는’, ‘인간적인 냄새가 나는’, ‘상대를 이해하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반응들은 된 사람의 판단이 대인관계의 준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자신의 일에 충실한’, ‘자신의 가치관이 확고한’,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는’, ‘자신감 있는’, ‘삶에 긍정적인’, ‘가식적이지 않은’, ‘신중한’ 등의 반응들도 많이 나타났다. 이 후자의 반응들은 삶과 생활에 대한 자세, 철학, 태도를 반영하는 것들로 된 사람에 대한 판단이 대인관계적 준거와 삶의 자세라는 두 가지 준거의 복합적인 판단에 의해 이루어짐을 보여준다(표 1).

한편, 잘된 사람 하면 떠오르는 인물로는 ‘테레사 수녀’(7명), ‘이순신’(3명)을 비롯하여, 남을 돕는 사람들(‘자원봉사자’, ‘익명의 선행자’ 등, 9명)를 비롯한 다양한 사람²⁾들이 제시되었다(68명 응답). 주위 사람을 대는 응답은 18명에게서 나왔다. 왜 그 사람을 대는 지 이유를 기술하게 하여 정리한 결과, ‘남을 배려’, ‘자기 희생’, ‘타인을 도움’ 등이 지배적으로 나타났다.

못된 사람의 특성: 못된 사람의 특징으로 가장 많이 나타난 반응은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상대를 이용하는’, ‘반인륜적인’, ‘예의없는’ 등 대인관계 준거의 특징들이 지배적으로 나왔다. 삶의 자세와 관련된 반응으로서는 ‘기회주의적인’, ‘생각 없는’, ‘위선-가식적인’, ‘죄책감이 없는’과 같은 것들이 많이 나타났다(표 1).

한편, 못된 사람 하면 떠오르는 인물로는 전현직 정치인들과 범죄자(13명)을 비롯하여 다양한 사람들이 언급되었다³⁾(68명 응답). 주위사람을 대는 응답은 6명에게서 나왔다. 그 이유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나라)에게 피해줌’, ‘자신만 생각’, ‘도덕성 결여’, ‘이중적 모습’ 등이 지배적으로 나타났다.

표 1. 된-못된 사람의 특징

2) 김대중(6명), 김구(5명), 김수환(2명), 칭찬합시다의 주인공들(3명) 등
3) 전두환(22명), 노태우(10명), 김영삼(8명), 박정희(4명), 이완용(3명) 등

된 사람의 특징		된지수	난지수	못된 사람의 특징		된지수	난지수
· 예의가 바른 사람:	12명*	139	16	·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	26명	-104	-40
·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	47명	116	11	· 이기적인 사람:	42명	-91	-20
· 자신의 일에 충실한 사람:	11명	107	52	· 위선 가식적인 사람:	14명	-90	-29
·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는 사람:	4명	105	38	· 기회주의적인 사람:	6명	-71	1
· 결손한 사람:	8명	102	8	· 생각없이 행동/말하는 사람:	11명	-51	-78
· 대인관계를 두루 잘 맺는 사람:	4명	102	61	· 자기중심적인:	17명	-	-
· 삶을 긍정적으로 대하는 사람:	4명	99	45	· 가식적인:	14명	-	-
· 상대방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	12명	93	1	· 반인륜적/비도덕적인:	12명	-	-
· 자신감 있는 사람:	4명	93	86	· 상대를 이용하는:	10명	-	-
· 인간적인 냄새가 나는 사람:	5명	82	8	· 비겁한:	8명	-	-
· 자신의 가치관이 확고한 사람:	10명	70	63	· 상대에게 피해를 주는:	7명	-	-
· 행동이 합리적인 사람:	8명	64	68	· 죄책감없는:	7명	-	-
· 분위기 파악 잘하는 사람:	5명	53	78	· 예의없는:	8명	-	-
· 신중한 사람	13명	-	-	· 기타:	9명	-	-
· 가식적이지 않은 사람:	8명	-	-				
· 생각이 어른스러운 사람:	6명	-	-				
· 상대를 이해해 주는 사람	6명	-	-				
· 기타	5명	-	-				

주 * 빈도수치는 첫 조사에서 나타난 응답빈도임

#난지수: 두 번째 조사에서 해당특성이 '잘난 사람'의 특성이라고 평가한 사람 수에서 '못난 사람'의 특성이라고 평가한 사람 수를 뺀 수치임. 수치가 나타나지 않은 항목은 둘째 조사에서 빠진 것임.

\$된지수: 두 번째 조사에서 해당특성이 '잘된 사람'의 특성이라고 평가한 사람 수에서 '못된 사람'의 특성이라고 평가한 사람 수를 뺀 수치임. 수치가 나타나지 않은 항목은 둘째 조사에서 빠진 것임.

잘난 사람의 특성: 잘난 사람의 특징으로는 '능력이 뛰어난', '지적 수준이 높은', '노력에 따른 성취' 등의 능력과 재능 및 성취에 대한 반응이 주로 나타났으며, '자신감이 강한',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상황에 맞게 처신하는' 등의 삶의 자세와 관련된 응답도 적지 않게 나타났다(표 2).

한편, 잘난 사람 하면 떠오르는 인물로는 사회적으로 성공을 거둔 인물⁴⁾들이 주로 거론되었다. 주위 사람을 대는 사람도 13명에게서 나왔다. 그 이유로는 '지식', '능력', '외모', '재능', '성공' 등의 요소들이 압도적으로 나타났다.

4) 정주영, 김대중(각 8명), 빌게이츠(5명), 박정희(4명), 서태지(3명) 등

못난 사람의 특성: 못난 사람의 특징으로 가장 많이 나타난 반응은 ‘자신감이 없는’, ‘자신을 비하하는’, ‘자기주장이 없는’, ‘노력하지 않는’, ‘자포자기하는’ 등의 삶의 자세와 관련된 반응이 주를 이루었다. 잘난 사람의 특징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능력과 관련해서는 ‘능력이 부족한’ 특성이 많이 나왔으나, 지배적인 응답은 삶의 자세와 관련된 것이었다(표 2).

한편, 못난 사람 하면 떠오르는 인물로는 정치인들이 많이 거론되었다⁵⁾(59명 응답). 주위 사람을 대는 응답은 11명에게서 나왔다. 그 이유로는 ‘능력부족’, ‘노력안함’, ‘잘난 척’, ‘남을 헐뜯음’, ‘저지른 잘못을 모름’ 등의 요소들이 많이 나타났다.

표 2. 잘난-못난 사람의 특징

잘난 사람의 특징		난지수 [#]	원지수 ^{\$}	못난 사람의 특징		난지수	원지수
· 자신의 능력이 뛰어난:	22명*	92	44	· 자신감이 없는:	25명	-99	-37
·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강한:	22명	86	93	·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20명	-98	-38
· 상대방에게 인정받는:	6명	79	73	· 자기 주장이 없는:	11명	-94	-28
· 상황에 맞게 처신하는:	4명	78	53	· 노력하지 않으려는:	7명	-91	-88
· 자기 주장이 뚜렷한:	9명	63	70	· 책임의식이 없는:	12명	-79	-53
· 자신이 하고픈 일에 최선을 다하는:	14명	52	107	· 능력이 부족한:	17명	-	-
· 자신이 맡은 일처리를 잘하는:	12명	38	105	· 소심한:	10명	-	-
· 지적 수준이 높은:	24명	-	-	· 부정적 사고만 하는:	9명	-	-
· 노력에 따른 성취를 하는:	15명	-	-	· 우유부단한:	8명	-	-
· 다방면에 재능있는:	11명	-	-	· 자포자기한:	6명	-	-
· 경제력 높은:	10명	-	-	· 기타:	26명	-	-
· 리더십있는:	2명	-	-				
· 기타:	27명	-	-				

주 * 수치의 의미는 표1의 각주를 참조바람.

된 사람과 난 사람의 자질

첫 조사에서 대학생들에게 “된(혹은 잘난) 사람이란 평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나”는 개방형 질문에 대한 응답을 정리한 결과가 표 3에 나와 있다. 이 결과는 표 1과 표 2의 결과를 대체로 확인해 주고 있다. 즉, ‘된 사람’이라는 평가를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 인간성, 예의범절뿐만 아니라 도덕성, 봉사정신, 성실성 등의 긍정적인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이 나타났다. 한편, ‘잘난 사람’이라는 평가를 위해서는 능력에 못지않게 재력, 학벌, 명예, 배경, 권력 등의 외적 요소들도 필요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여기서는 표 2에서 나타난 삶의 자세 내용이 현저히 적게 나타났다.

표 3. 잘난(된) 평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자질*

5) 김영삼(19명), 노태우(4명), 김대중 전두환(각 2명), 자신(5명) 등

잘난 사람 평가 받기 위해 필요한 것	된 사람 평가 받기 위해 필요한 것
· 능력: 47명 · 39.5%	·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 32명 · 26.9%
· 재력: 45명 · 37.8%	· 인간성: 24명 · 20.2%
· 학벌: 23명 · 19.3%	· 예의범절: 21명 · 17.6%
· 지적능력: 15명 · 12.6%	· 도덕성: 12명 · 10.1%
· 명예: 15명 · 12.6%	· 타인에 대한 봉사: 9명 · 7.6%
· 좋은 배경: 14명 · 11.8%	· 성실성: 8명 · 6.7%
· 권력: 13명 · 10.9%	· 겸손함/올바른 가치관: 각 7명 · 5.9%
· 지위: 8명 · 6.7%	· 지적 성숙: 6명 · 5.0%
· 자신감/외모/직업: 각 7명 · 5.9% 씩	· 자신의 능력: 5명 · 4.2%
· 원만한 대인관계: 6명 · 5.0%	· 사교적인 성격: 4명 · 3.4%
· 자기관리: 4명 · 3.4%	· 판단력: 4명 · 3.4%
· 결단력/리더십/최선의 노력/인지도 각 3명	· 양심/정의감/박식/책임감 각 3명 · 2.5%
· 기타: 16명 · 13.4%	· 기타: 18명 · 15.1%

* 복수 응답이 가능하였음.

논 의

연구 1에서는 사회생활에서 바람직한 평가를 받는 사람들에 대한 판단준거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행하였다. 사람에 대한 평가는 도덕성(된-못된) 차원과 능력(잘난-못난) 차원이 구분될 수 있다고 보아 이 차원들의 판단준거를 파악하기 위하여 두 가지 조사를 했다. 두 조사 결과가 대동소이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된 사람이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특성이 남에 대한 배려심 등 대인관계 준거로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삶의 자세도 중요한 준거로 나타나고 있어, 된 사람이라는 평가는 복합적으로 이루어짐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못된 사람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이 없는 이기적인 사람들이며,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사람들로 대인관계 준거가 중심으로 작용함을 볼 수 있었다. 이 현상은 된 사람의 판단 기준에 작용하는 두 가지 준거가 모두 작용해서 못된 사람의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흥미롭기도 하다. 즉, 못된 사람의 판단에는 그가 이기적인 사람이나 아니냐의 단순성을, 된 사람의 판단에는 그가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회성(이타성)과 더불어 긍정적인 삶의 자세를 갖추었느냐의 복합적인 준거를 적용시키는 판단이 나타난다.

이 결과와 관련하여 두 가지가 논의될 수 있다. 우선, ‘된/못된’의 판단에서 핵심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대인관계의 특성-타인에 대한 배려 혹은 이기성-이라는 점이다. 된 사람의 특징으로 필요한 삶의 자세가 못된 사람의 판단에는 필수요소가 아니며, 대인관계성이 필요충분적인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이는 연구자들이 상정한 한국사회의 특징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같은 판단의 비대칭적 양상이 외국에서도 나타나는지는 흥미로운 관찰이 될 것이다.

두 번째로,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도덕성을 “도덕적 규범을 준수(혹은 위반)하거나 남들에

게 좋은(혹은 나쁜) 행동을 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Wojciszke et al., 1998, p. 1253). 즉 도덕성을 사회적 교류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적 특성으로 보는 시각이다. 이같은 정의는 도덕성을 대인관계성과 삶의 자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한 것이다. 그런데, 본 연구는 도덕성-비도덕성의 판단이 같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보이고 있어, 대인평가에 있어서 도덕성의 두 구성요소를 분리하여 접근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이같은 구분을 하였을 때 도덕성의 평가에 미치는 영향력의 상대적인 크기에 있어서 흥미로운 문화차이가 상정될 수 있다. 즉, 개인주의 문화권에서는 삶의 자세가,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는 대인관계적 정보가 개인의 도덕성 평가에서 더욱 중요한 준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클 것이다.

한편, 잘난 사람이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재능을 지녔는지 혹은 사회적으로 성공했는지 가 관건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못난 사람에 대한 평가는 그 사람의 삶의 자세가 관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도 역시 ‘잘난/못난’의 판단에 각기 다른 준거가 작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잘난 사람의 평가를 위해서는 성취와 재능이 중요하지만, 이들이 없어서 못난 사람이라는 평을 받기보다는 삶의 자세가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사회적 성공을 하였어도 그 성공이 능력 밖의 것이거나 삶의 자세가 부적합하다면 못난 사람으로 평가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같이 의미적으로 상극인 유형의 판단에, 다른 준거가 작용한다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이는 어의적으로 양극단에 놓인 평가대상을 동일 차원에서 양적인 차이로 간주하는 심리학의 접근(어의변별척도가 대표적인 예, Osgood, 1964)이 실제 생활에서의 판단양상과는 거리가 클 수 있다는 지적(Ratner, 1997)이 호소력 있음을 보여준다.

연구 2

연구 1에서는 한국사회에서 사람의 도덕성과 능력에 대한 평가의 준거 내용을 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도덕성과 능력 두 차원의 공통된 평가 준거로 삶의 자세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된 사람이라는 평가를 위해서는 대인관계성이, 난 사람이라는 평가를 위해서는 능력(성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의 사회생활에서 사람들은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으며 상대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된다. 즉, 도덕성과 능력에 대한 제반 정보가 뒤섞여 작용하는 생활을 한다. 흥미로운 것은 이들 준거 정보들이 배합되어졌을 때 상대방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하는 것이다. 이를 보기 위하여 연구 2에서는 표적인물에 대하여 도덕성과 능력에 관한 복합적인 정보를 접하였을 때에 그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고자 하였다. 이 평가양상을 분석하기 위하여 각 준거 정보의 특징을 조작하여 제시하는 설문을 이용한 실험방식을 채택하였다. 삶의 자세 준거가 ‘된-난’사람의 판단에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준거이기 때문에 이 준거에 속하는 정보를 긍정적(혹은 부정적)인 양태로 제시하고, 다른 준거(대인관계성 혹은 능력)에 속하는 긍정적(혹은 부정적)인 정보와 결합시켜 제시하여 인물에 대한 평가를 비교하였다.

방 법

예비 조사

연구 2에서는 연구 1에서 나타난 준거들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항목들을 조합하여 사람들에게 제시하고 그 같은 특징을 지닌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각 항목들이 해당 준거를 명백히 짚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이를 위해 일군(34명)의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 1에서 나타난 항목들을 중심으로 45개의 항목들을 제시하고서 각 항목이 삶의 자세, 대인관계, 능력 준거 중 어떠한 것에 해당하는지 택일하여 선택하도록 하였고, 각 항목이 각 준거에서 얼마나 바람직한지 혹은 바람직하지 못한지를 9점(-4 ~ +4) 척도 상에 평가하게 하였다. 이 45개의 항목들은 연구 1의 결과에서 나타난 삶의 자세와 관련된 것 17개(예: '성실한 삶의 자세를 지니고 있다',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한다', '책임질 일에 책임을 회피한다' 등), 대인관계와 관련된 것 16개(예: '주위사람들의 허물에 관대하다', '깊이있게 사람을 사귀지 않는다', '대인관계가 원만하다' 등), 능력과 관련된 것 6개(예: '기획력이 뛰어나다', '조리있는 언변을 구사한다' 등)와 기타 6개로 구성되었다. 이들 항목들은 연구 1에서 나타난 각 준거에서 부정적인 항목들과 긍정적인 항목들을 고루 포함하도록 구성하였다. 각 항목에 대하여 응답자들의 60% 이상이 특정 준거에 속한다고 선택한 항목들을 대상으로 하여 본 조사에 쓰일 항목들을 구성하였다. 예비조사는 2003년 3월에 이루어졌다.

본 조사

조사 대상: 남학생 80명(34.6%)을 포함한 231명의 전남대학교 학생들이 자료 수집에 응하였다. 자료 수집은 여러 강좌의 수업시간을 이용해서 이루어 졌다. 각 수업시간에 A형과 B형 두 개의 설문지가 무작위적으로 배포되어 작성되었으며 소요시간은 15분 안팎이었다. 조사는 2003년 5월과 6월에 이루어졌다.

조사 설문지의 구성: 설문에는 두 개의 문장으로 기술된 다양한 가상적인 표적인물이 제시되었다. 응답자들은 기술문을 보고서 해당 인물에 대하여 '나쁜-좋은,' '못된-된,' '못난-잘난,' '멀리하고픈-가까이 하고픈'의 반응 항목에 대하여 9점 양분척도 상에 평가하도록 하였다. 응답자들은 16명의 가상인물에 대하여 평가를 하였다. 연구 1에서 보듯이 삶의 자세 준거가 도덕성과 능력의 판단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준거이므로 삶의 자세 준거와 능력에 대한 준거를 조합하여 구성된 설문(A)과 삶의 자세 준거와 대인관계 준거의 항목을 조합하여 구성된 설문(B)의 두 가지를 만들었다.

A형에는 삶의 자세(긍정적/부정적)와 능력(있음/없음)에 대한 정보를 조합하여 4가지 유형의 인물을 섞어서 제시하였다⁶⁾. 각 유형에는 네 가지 표적인물이 제시되어 응답자들은 모두 16명의 표적인물에 대하여 평가를 하였다. 이들 네 가지 인물을 기술하는 항목들은 예비조사에서 걸러진 항목들의 모집단에서 해당하는 특성들을 택하여 조합한 것이다. 되도록이

6) 네 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예를 한 가지씩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뚜렷한 삶의 철학을 지니고 있다. 창의적인 시각으로 문제를 접근한다' (자세 +/ 능력 +) / '머리가 아둔하다. 정직하게 살려고 한다' (자세 +/ 능력 -) / '머리가 똑똑하다. 책임질 일에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 (자세 -/ 능력 +) / '창의력이 없다. 맡은 일에 책임을 회피한다' (자세 -/ 능력 -)

면 다양한 특성들을 제시하여 특정 항목의 효과보다는 유형의 효과를 보고자 하였다. 아울러 먼저 제시되는 항목이 초두효과를 유발할 가능성 때문에 항목들의 선후를 뒤섞어 제시하였다. 남학생 40명과 여학생 80명이 A형 설문에 응답하였다.

B 형에는 삶의 자세(긍정적/부정적)와 대인관계(긍정적/부정적)에 대한 정보를 조합하여 4가지 유형의 인물을 섞어서 제시하였다⁷⁾. 각 유형에는 네 가지 표적인물이 제시되어 응답자들은 모두 16명의 표적인물에 대한 평가를 하였다. 남학생 40명과 여학생 71명이 B형 설문에 응답하였다.

결 과

설문 A와 설문 B 각기 별로 같은 유형에 속하는 네(2 X 2) 표적인물에 대한 평정치를 종속변인 별로 평균을 구하여 표적유형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조작한 두 준거변인을 집단내 변인으로 하고, 응답자의 성을 집단간 변인으로 하는 (2 X 2) X 2 혼합변량분석을 수행하였다. 각종 통계분석은 SPSS-PC 11판을 이용하여 행하였다. 응답자의 성은 모든 종속변인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가져오지 않았기에($p > .05$) 성차를 무시한 분석결과를 각 설문 유형별로 제시하였다.

설문 A형: '삶의 자세'와 '능력'

주효과 분석: 표적인물에 대한 삶의 자세와 능력에 대한 준거 정보를 복합적으로 제시 받았을 때 응답자들의 네 가지 응답변인에 대한 평균과 각 변인에 대한 변량분석 결과값이 표4에 제시되어 있다. 행해진 변량분석의 수가 많아서 요약표를 제시하는 대신에 F 검증 통계치를 제시하고, 효과의 크기를 보여주는 통계치로 에타스퀘어(η^2)값⁸⁾을 본문에서 필요시에 제시하고자 한다.

표적인물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나쁜/좋은)와 접근성(멀리/가까이)에 있어서 삶의 자세 효과가 능력의 효과보다 훨씬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효과의 크기를 보여주는 η^2 값이 자세의 경우에 .858(나쁜/좋은), 876(멀리/가까이)로서, 능력의 .367과 .535에 비해서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능력의 효과는 못난/잘난 평가항목에서만 자세의 주효과에 버금가게(능력 .750 자세 .774) 나타났을 뿐 전반적으로 자세만큼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삶의 자세*능력]에 따른 인물평가의 평균 및 변량분석 결과

7) 다음과 같은 예들이 제시되었다: '성실한 삶의 자세를 지니고 있다. 대인관계가 원만하다' (자세 + / 관계 +) / '자기중심적이다.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한다' (자세 + / 관계 -) / '자기일보다 남의 일에 더 신경을 쓴다. 자기일에는 철저히 못하다' (자세 - / 관계 +) / '맡은 일에 책임을 회피한다. 자기중심적이다' (자세 - / 관계 -).

8) 다요인실험설계에서 효과의 크기를 비교하기 위하여 해당 변인의 효과를 오차와 결합한 변량에서 변인의 효과 크기를 산출하는 부분(partial) 에타스퀘어를 구하였다(Tabachnick & Fidell, 1989, p. 345))

조작변인		응답변인			
자세	능력 (인물)	나쁜/좋은	못된/된	못난/잘난	멀리/가까이
+	+ (A)	2.47	2.64	2.60	2.94
	- (B)	1.67	1.82	.15	1.77
-	+ (C)	-.8	-1.06	-.29	-1.09
	- (D)	-1.29	-1.34	-1.93	-1.93

변량분석 F값#		나쁜/좋은	못된/된	못난/잘난	멀리/가까이
자세	주효과	720.59***	943.56***	408.00***	842.76***
능력	주효과	69.10***	58.61***	356.39***	136.94***
자세*능력	상호작용	7.43**	16.07***	46.90***	5.46*

주 # F 값의 자유도는 모두 1과 119 이다.

+ 기호는 해당 준거의 긍정적인 정보, - 기호는 좋지 않은 정보를 의미함.

* $p < .05$, ** $p < .01$, *** $p < .001$

A: 삶의 자세가 바람직하고 능력도 있음

B: 삶의 자세는 바람직하나 능력은 별로임

C: 삶의 자세가 바람직하지 못하나 능력은 있음

D: 삶의 자세가 바람직하지 못하고 능력도 별로임.

상호작용 효과 분석: 그림 1과 2는 나타난 상호작용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그림 1은 호오도 평가의 평균을 제시한 것이지만 ‘못된/된’, ‘멀리/가까이’의 결과 양상도 이와 비슷하다. 이 양상은 해당 변인들의 판단에서 삶의 자세가 긍정적이라면 능력의 정보가 영향을 미치지만, 삶의 자세가 부정적이라면 능력의 정보는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보여준다. 즉 삶의 자세가 좋지 않다면, 해당인물의 능력 정보에 관계없이 호오도, 된/못된, 친밀성 판단이 부정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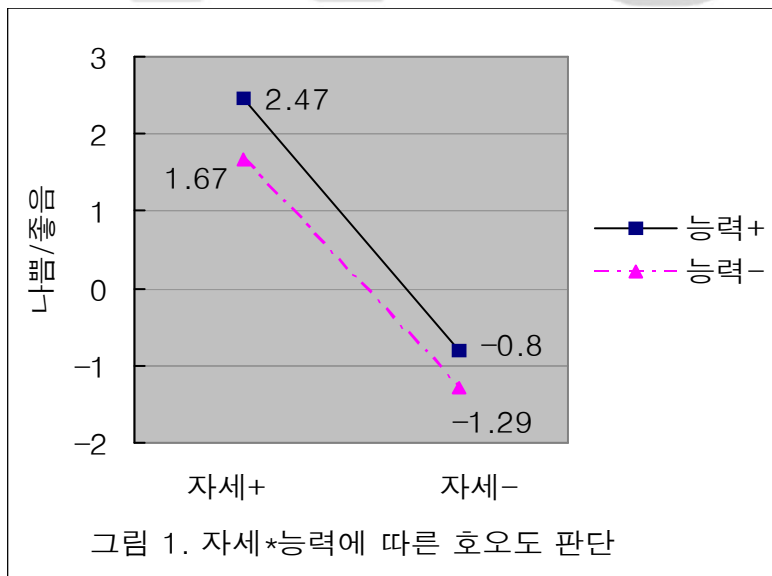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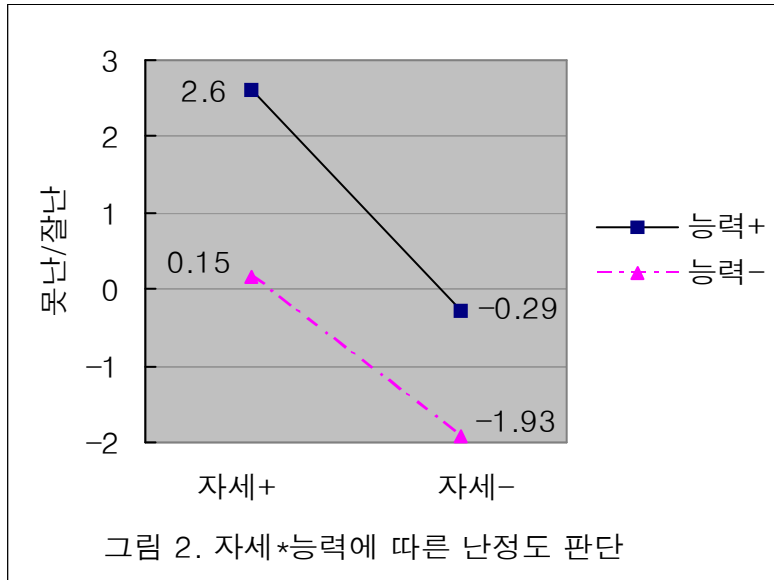


그림 2는 ‘못난/잘난’ 문항에 대한 응답평균을 보여주고 있다. 이 경우에도 상호작용의 양상은 전술한 것과 비슷하게, 삶의 자세가 긍정적인 경우에 능력의 정보가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준다. 다만 다른 응답과 달리, 자세가 긍정적이라도 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한

평가가 자세가 부정적이지만 능력이 있는 사람에 비해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응답자들이 ‘못난/잘난’이라는 능력의 판단시에는 능력 준거와 관련된 정보의 변화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설문 B형: ‘삶의 자세’와 ‘대인관계’

주효과 분석: 표적인물에 대한 삶의 자세와 대인관계에 대한 정보를 복합적으로 제시했을 때 응답자들의 네 가지 응답변인에 대한 평균과 각 변인에 대한 변량분석 결과값이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표적인물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나쁜/좋은)와 접근성(멀리/가까이), 그리고 ‘못된/된’의 판단에 있어서 삶의 자세 효과와 대인관계의 효과가 비슷한 정도로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η^2 값은 삶의 자세가 .817(나쁜/좋은), .804(못된/된), .793(멀리/가까이)로 나타났다. 대인관계의 경우에 .850, .814, .859로 나타나 자세에 버금하거나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직 ‘못난/잘난’의 평가에서만 삶의 자세 효과가 월등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에 η^2 는 자세가 .795로, 대인관계가 .324로 나타났다. 이는 ‘못난/잘난’의 판단에 대인관계성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삶의 자세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연구 1의 결과를 지지해 주는 것이다.

표 5. [삶의 자세*대인관계]에 따른 인물평가의 평균 및 변량분석 결과

조작변인			응답변인			
자세	대인관계 (인물)		나쁜/좋은	못된/된	못난/잘난	멀리/가까이
+	+	(E)	2.82	2.76	1.98	2.91
	-	(F)	.41	.46	.87	.01
-	+	(G)	1.26	.70	-.70	.76
	-	(H)	-1.71	-1.80	-1.19	-2.30

변량분석 F값#	나쁜/좋은	못된/된	못난/잘난	멀리/가까이
자세 주효과	492.14***	452.51***	426.75***	420.15***
대인관계 주효과	621.94***	482.69***	52.81***	672.26***
자세*대인관계 상호작용	11.29**	1.89	15.08***	1.04

주 # F 값의 자유도는 모두 1과 110 이다.

+ 기호는 해당 준거의 긍정적인 정보, - 기호는 좋지 않은 정보를 의미함.

* $p < .05$, ** $p < .01$, *** $p < .001$

E: 삶의 자세가 바람직한 편이며 대인관계도 괜찮음

F: 삶의 자세가 바람직한 편이며 대인관계가 안 좋음(이기적임)

G: 삶의 자세가 바람직하지 못하며 대인관계는 괜찮음

H: 삶의 자세가 바람직하지 못하며 대인관계도 안 좋음.

상호작용 효과분석: 그림 3과 4는 나타난 상호작용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도작들이다. 그림 3은 호오도 평가의 양상을 도작한 것이다. 이를 보면, 삶의 자세가 긍정적인 경우보다 부정적인 경우에 대인관계 정보가 미치는 효과가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양상은 삶의 자세가 긍정적인 경우에 능력 정보가 더 크게 작용하는 설문 A의 결과와는 반대되는 결과이다(그림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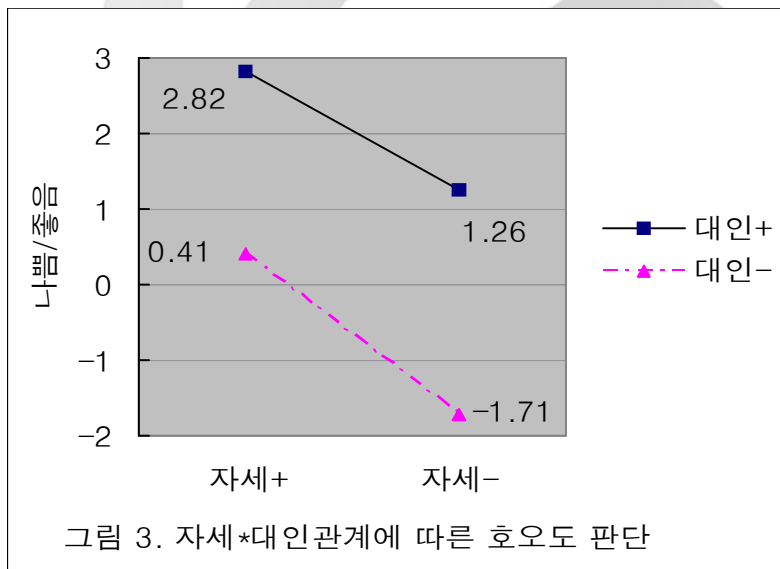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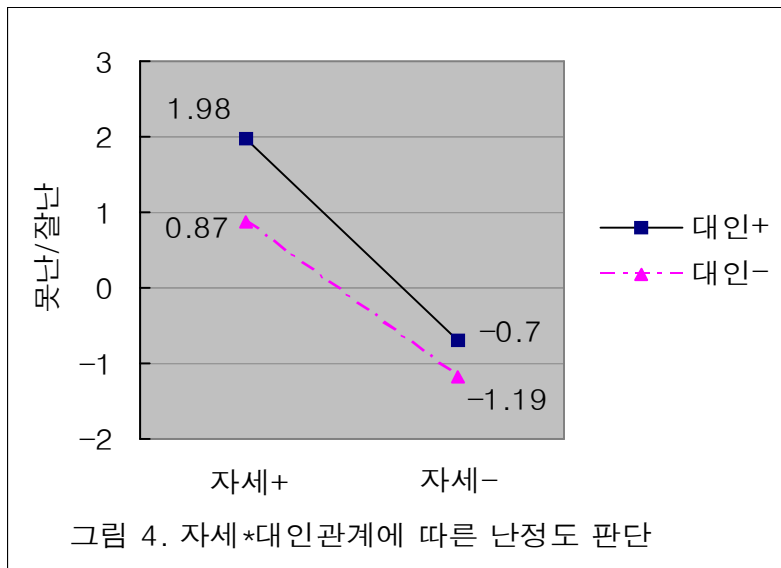


그림 4는 '못난/잘난' 문항에 대한 응답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상호작용의 양상은 삶의 자세가 긍정적인 경우에 대인관계의 정보가 영향을 미치며, 자세가 부정적이라면 대인관계 정보는 '못난/잘난' 문항의 평가에 별 영향을 못 미치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못난/잘난' 이라는 능력 준거의 판단에서는 대인관계 정보보다 삶의 자세를 더욱 중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대인관계 정보가 능력과는 별 관계없다고 응답자들이 인식하고 있음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논 의

연구 2에서는 대인교류에서 상대방에게서 접하는 몇몇 준거에 대한 여러 정보들이 상대방에 대한 평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특히, 연구 1에서 나타난 삶의 자세, 능력, 대인관계 준거들의 영향력을 비교하였다. 즉, 삶의 자세에 대한 정보에 비해서, 능력의 정보(설문 A)와 대인관계에 대한 정보(설문 B)가 상대적으로 어떠한 중요성을 지니는지를 보고자 하였다.

삶의 자세와 능력의 정보를 조합하여 구성된 설문A의 응답을 분석하여 주효과의 크기를 비교한 결과, 표적인물에 대한 평가를 좌우하는 것은 삶의 자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능력의 유무가 미치는 영향도 나타났으나, 삶의 자세가 미치는 영향력이 지배적이었다. 삶의 자세가 부정적이라면 능력의 유무는 전반적인 평가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삶의 자세가 긍정적인 경우에 능력의 유무가 평가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폴란드에서 행한 연구결과와 부합하고 있다(Wojciszke et al., 1998, 연구 4).

삶의 자세와 대인관계 정보를 조합하여 구성된 설문 B의 응답에서 나타난 주효과의 크기를 비교한 결과는 삶의 자세만큼이나 대인관계 정보도 인물평가에 중요함을 보이고 있다. 흥미로운 상호작용은 호오도의 평가에 있어서 나타났다. 즉 삶의 자세가 긍정적인 경우보다 부정적인 경우에 대인관계의 정보가 더욱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양상은 삶의 자세가 긍정적인 경우에 능력의 정보가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설문 A의 양상과는 상치되는 것이다. 이는 삶의 자세가 부정적이라 해도 타인에 대한 배려를 보이고, 대인관계가 긍정적인 사람에 대하여는 사람들의 평가가 그다지 부정적이지 않음을 뜻한다. 즉, 삶의 자세가 부정적이라 해도 대인관계의 정보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한국사회가 대인관계를 중시하는 문화적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반영하는 현상이라 해석될 수 있다.

이전 연구들에서 삶의 자세와 대인관계의 준거는 도덕성 준거로 묶여서 취급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를 직접 비교할 수는 없다. 본 연구에서는 이 두 가지를 분리하여 비교할 것

과 삶의 자세 못지않게 대인관계의 정보가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상대방의 능력(못난/잘난)에 대한 평가에서는 대인관계의 정보가 큰 영향을 못 미치고 있다. 이는 응답자들이 대인관계 정보를 상대방의 능력과는 별개의 것으로 보는 것을 의미한다. 즉, 능력판단에 대한 적합한 준거정보가 없을 경우에는 대인관계의 정보보다는 삶의 자세에 관한 정보를 능력판단의 준거로 사용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이는 삶의 자세가 부정적인 사람을 못난 사람의 중요한 특징으로 여기는 연구 1의 결과와 부합하는 것이다.

종합 논의

본 연구를 통해 연구자들은 한국인의 일상생활에서 사람의 평가에 작용하는 문화심리적 준거가 무엇이며 이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 1에서는 된(못된) 사람과 난(못난) 사람에 대한 사람들의 판단 준거를 파악하였다. 이 결과로 인물평가에 있어서 삶의 자세(이하 자세), 능력, 대인관계의 세 가지가 평가의 준거로 작용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울러, 어의상으로 상반된 유형의 인물평가가 각기 다른 준거의 적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나타났다. 연구 2에서는 자세와 능력, 삶의 자세와 대인관계 준거의 정보를 변화시켜 복합적으로 제시하여 평가에서 주로 작용하는 준거가 어떠한 것인지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능력과 자세 비교에서는 자세 준거가 전반적인 평가에서 중요한 준거로 작용하며, 자세와 대인관계 특성의 비교에서는 두 가지가 모두 중요한 준거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들은 몇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첫째, 한국사회에서 일상적으로 행하여지는 사람 판단의 준거와 그 속성들을 드러낸 점이다. 연구자들은 한국사회의 집단주의적 문화특성이 인물평가에 작용하여 대인관계의 준거가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았다. 연구결과, 사람 평가에서 삶의 자세가 중요한 준거로 작용하지만, 대인관계의 준거도 자세만큼이나 중요성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연구가 개인주의 문화권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인 비교를 하기는 어렵지만,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는 한국인들이 대인관계를 중시하는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이점에서 본 연구는 집단주의 문화가 지닌 여러 특징 중에서,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특징을 잘 드러내었다고 보겠다. 집단주의 문화는 개인주의 문화의 대비 구조로서 이론 틀에 포함되어(Triandis, 1989), 그 문화의 실체성과 용어의 적절성에 대하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최상진, 2000; Ho, 1998; Hong, Morris, Chiu, & Benet-Martinez, 2000 등). 본 연구는 모호한 집단주의 문화의 실체로써 관계주의(relationalism)의 발현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나타난 전반적인 양상은 인물평가에 있어서 능력보다는 도덕성이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⁹⁾. 이같은 결과는 기존의 연구(Wojciszke 등, 1998) 결과를 확인해 주고 있는 것이나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과 달리 도덕성의 부분을 삶의 자세와 대인관계의 두 가지 요소로 나누어 평가에서 작용하는 양상을 비교하였다¹⁰⁾. 그 결과, 삶의 자세 못지않

9) 연구 1의 두 번째 조사에서 각 항목에 대한 사회적 바람직성을 7점척상에 응답하게 한 결과를 각 항목의 된지수 및 난지수와 상관을 구한 결과 된지수와의 상관인 .96, 난지수와의 상관인 .81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사회의 대학생들이 된사람이 난사람보다 사회적으로 더욱 바람직한 인물이라고 여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10) 본 연구에서 '삶의 자세'는 삶에 대하여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태도, 가치관 등 생활철학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인관계에 대한 철학도 삶의 자세에 포함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타인과의 관계를 전

게 대인관계도 중요한 준거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몇몇 비교문화연구들이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사회성을,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의 능력을 인물평가의 중요한 준거로 삼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기는 하다(조공호, 1996 정리). 그러나 최근의 연구들(Skowronski & Carlston, 1989; Wojciszke 등, 1998)은 도덕성이 인물평가에서 능력의 정보보다 훨씬 큰 중요성을 지니는 것은 범문화적 보편성을 지닌 진화심리적 결과임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Barkow, Cosmides, & Toolby, 1992). 그 이유는 사회생활에서 사람들은 마주치는 상대방에 대하여 접근할 것인지 피할 것인지를 판단하게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도덕성-인간 됨됨이-에 관한 판단이기 때문이다. 상대방의 능력에 대한 판단은 얼마나 자신에게 도움이 될지(접근) 혹은 해가 될지(회피)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정보이기는 해도, 접근이나 회피이나를 결정하는 핵심준거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Wojciszke 등, 1998). 이런 입장을 받아들인다면, 인물평가에서의 문화차이는 본 연구에서 구분한 도덕성의 두 가지 속성이 미치는 영향력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겠다. 즉,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는 대인관계가, 개인주의 문화권에서는 삶의 자세가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준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추후 연구에서 밝혀볼 만한 흥미로운 문제라고 보겠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인물평가에 있어서 의미상 대립되는 유형의 판단에 동일한 준거가 적용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인물평가가 단순한 지각현상과는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즉, 된 사람의 판단에는 삶의 자세와 대인관계가, 못된 사람의 판단에는 대인관계가, 잘난 사람의 판단에는 능력과 삶의 자세가, 못난 사람의 판단에는 삶의 자세가 주요 준거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가 다른 문화권에서도 나타나는 보편성을 지닌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언어학적인 의미의 상극(相剋)성을 바탕으로 심리적 기제의 상극성을 상정하는 것은 동일구조성(isomorphism) 가정은 잘못된 가정임을 제시하고 있다. 심리학적 동이성은 늘 검증을 필요로 한다(Ratner, 1997). 본 연구에서 나타난 이 양상은 응답의 빈도를 근거로 한 것이므로 추후 정밀한 추적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인물평가 혹은 대인지각에 대한 연구가 국내에서도 상당히 이루어졌지만, 이 연구들에서 사용한 평정척도는 외국에서 개발하여 사용된 것들을 번안하여 사용하였거나, 어휘사전에 나타난 형용사들을 골라내어 사용하였다. 사회심리학이 사회생활속의 심리현상을 연구한다는 면에서 평정항목들도 한국인의 일상적 표현 행위를 바탕으로 구성되어질 필요가 크다(한규석, 2002). 본 연구의 목적이 인물에 대한 평정척도의 개발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평정척도의 개발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겠다.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 시킬 수 있는가의 가능성과 제한점, 그리고 추후 연구에 대하여 세 가지 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 첫째는 본 연구에서 채택한 각 준거를 대표하는 항목들이 바뀌었을 때도 본 연구결과가 재현될 것인가 하는 일반화의 문제이다. 대인관계, 삶의 자세, 능력의 준거에 대한 정보들은 무수히 많으나,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이 제공한 항목들 가운데서 빈도가 높고 각 준거를 대표할 만한 항목들을 선별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각기의 항목에 대한 응답을 분석하는 대신에 유형별로 응답을 묶어서 분석함으로써 항목의 영향 보다는 유형의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즉, 응답자들은 네 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16명의 표적 인물에 대한 평가를 한 것이다. 각 유형인물에 대한 정보가 극단적인 항목(예, '사기를 잘치는' '제갈공명처럼 능력이 탁월한' 등)과 일반적인 항목(예, '친화력 있는', '책임을 회피하

제로 보이는 행동, 철학을 '대인관계'로 구분하여, 삶의 자세와 구별하고자 하였다. 두 가지는 관련이 있을 수 있지만 서로 독립적인 취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는' 등)이 선택되어 배합된다면 각 인물에 대한 평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일반화의 가능성을 높이고자 각 준거들에서 대표적인 항목들을 선택하여 이들을 배합하였기 때문에, 유형에 대한 일반화가 가능하다고 본다.

둘째로, 인물평가는 평가의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가 제한점을 지닌다는 지적이다. 이 전의 한 연구에서는 응답자들이 노사협상의 중재자를 선택하는 상황에서는 능력 정보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일반적인 평가 상황에서는 도덕성 정보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보인 바 있다(Wojciszke 등, 1998). 본 연구에서는 표적인물에 대한 평가를 요구하면서 특별한 상황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평가 상황이라 하겠다. 평가 목적이 다른 상황들에서 각 준거가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는 추후 연구의 과제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참여자의 특성과 관련한 일반화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두 가지가 별도로 논의될 수 있다. 우선, 성차의 문제이다. 성역할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자들이 여성들이 도덕성을, 남성들이 능력을 인물판단의 주요 준거로 여긴다는 주장과 증거를 보이고 있다(Eagly, 1987 참조). 본 연구에서 연구 1의 경우, 남여의 참여자 비율이 비슷하였고, 연구2의 참여자들에서 여성이 65.4%를 차지하고 있어 다소 높았다. 그러나 응답변인에 대한 통계분석에서 남여의 성차는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여성의 경향으로 간주하기는 어렵다. 둘째, 본 연구의 참여자가 지방의 대학생들이라는 점에서 작용하는 일반화의 문제점을 짚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 지역의 대학생들이라면 대인관계의 정보가 갖는 중요성이 덜 나타날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다. 서울 지역의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가능성을 충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명시적인 가치관의 직접적인 측정이 문화변동을 잘 보여주는 반면에, 내현적인 응답이나 행태분석과 같은 간접적인 가치관의 측정은 문화의 변동보다는 문화의 내재적 특성을 더 잘 반영하는 경향이 있다는 기존의 연구들(한규석, 신수진, 1999 참고)에 비출 때 본 연구의 결과는 지역대학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보다는 한국의 내현적 문화양상을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물론 이러한 주장은 실증적 자료에 의해서 검증될 필요가 크다.

참고문헌

- 김정운, 한성열 (1998). 문화심리학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7(1), 97-114.
- 임희섭 (1994). 한국사회의 변동과 가치관. 서울: 나남출판.
- 조궁호 (1990). 대인평가차원의 이원모형.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9(1), 87-110.
- 조궁호 (1996). 문화유형과 타인이해 양상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5(1), 104-139.
- 차재호, 정지원 (1993). 현대 한국사회에서의 집합주의.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7(1), 150-163.
- 최상진 (2000). *한국인 심리학*. 서울: 중앙대학교 출판부.
- 최상진, 한규석 (1998). 심리학에서의 객관성, 보편성 및 사회성의 오류: 문화심리학의 도전.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7(1), 73-96.
- 최상진, 한규석 (2000). 문화심리학적 연구방법론.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및성격*, 14(2), 123-144.
- 한규석 (1991). 집단주의-개인주의 이론의 현황과 전망.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0(1), 1-19.
- 한규석 (1996). 사회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편), *한국심리학회 50년사*. 서울: 교육과학사.
- 한규석 (2002). 한국적심리학의 전개현황과 과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7(1), 73-96.
- 한규석, 신수진 (1999). 한국인의 선호가치 변화-수직적 집단주의에서 수평적 개인주의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및성격*, 13(2), 293-310.
- Asch, S. (1946). Forming impressions of personality.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41, 258-290.
- Anderson, N. (1965). Averaging versus adding as a stimulus combination in impression formation.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70, 393-400.
- Barkow, L., Cosmides, L., & Toolby, J. (1992, eds). *The adapted mind: Evolutionary psychology and the generation of culture*. NY: Oxford University Press.
- Barnlund, D. (1975). *Public and private self in Japan and United States*. Tokyo: Simul Press.
- Blake, R., & Mouton, J. (1964). *The managerial grid*. Houston: Gulf Publishing.
- Bond, M. H., & Forgas, J. P. (1984). Linking person perception to behavioral intention across cultures: The role of cultural collectivism.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15, 337-352.
- Choi, S-C., Kim, U. & Choi, S-H. (1995). Indigenous analysis of collective representation: A Korean perspective. In U. Kim & J. Berry(Eds.), *Indigenous psychology*. CA: Sage.
- Eagly, A. (1987). *Sex differences in social behavior: A social-role interpretation*.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Fiske, A., Kitayama, S., Markus, H. R., & Nisbett, R. E. (1998). The cultural matrix of social psychology. In, D. Gilbert, S. Fiske, & G., Lindzey (Ed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4th Ed)*, vol. 2. 915-981.

- Han, G., & Park, B. (1995). Children's choice in conflict: Application of the theory of individualism- collectivism.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26*(3), 298-313.
- Ho, D. (1998). Methodological relationalism. *Asi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1), 1-16.
- Hofstede, G. (1980). *Culture's consequences: International differences in work-related values*. Beverly Hills, CA: Sage.
- Hong, Y-y., Morris, M., Chiu, C-y., & Benet-Martinez, V. (2000). Multicultural minds: A dynamic constructivist approach to culture and cognition. *American Psychologist, 55*(7), 709-720.
- Kinder, D., & Sears, D. (1985). Public opinion and political action. In G. Lindzey & E. Aronson (Eds.),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3rd ed. vol. 2)*. pp. 659-741). NY: Random House.
- Markus, H.,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 224-253.
- McArthur, L., & Baron, R. (1983). Toward the ecological theory of social perception. *Psychological Review, 90*, 215-238.
- Osgood, C. E. (1964). Semantic differential technique in the comparative study of cultures. *American Anthropologist, 66*, 171-200.
- Ratner, C. (1997). *Cultural psychology and qualitative methodology*. NY: Plenum.
- Rhee, E., Uleman, J., Lee, H. K., & Roman, R. (1995). Spontaneous self-descriptions and ethnic identities in individualistic and collectivistic cult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 142-152.
- Rosenberg, S., & Sedlak, A. (1972). Structural representations of implicit personality theory.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6*, 235-297.
- Shweder, R. (1990). *Thinking through culture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Skowronski, J., & Carlston, D. (1989). Negativity and extremity biases in impression formation: A review of explanations. *Psychological Bulletin, 105*, 131-142.
- Tabachnick, B., & Fidell, L. (1989). *Using multivariate statistics*. New York: Harper & Collins.
- Trapnell, P., & Wiggins, J. (1990). Extension of the interpersonal adjective scales to include the big five dimensions of persona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781-790.
- Triandis, H. (1989). The self and social behavior in differing cultural contexts. *Psychological Review, 96*, 506-520.
- Wojciszke, B. (1994). Multiple meanings of behavior: Construing actions in terms of competence and mora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 222-232.
- Wojciszke, B., & Bazinska, R., & Jaworski, M. (1998). On the dominance of moral categories in impression forma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4*(12), 1251-1263.

Yang, K-S., & Bond, M. H. (1990). Exploring implicit personality theories with indigenous or imported constructs: The Chinese cas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1087-1095.

K C I

Key Criteria in Evaluating People's Morality and Competence in Korean Society

Gyuseog Han, Songhyun Choi,

Wook Jeong, & Jaechang Bae

Department of Psychology,

Institute for Social Science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Two studies were conducted to investigate criteria used to evaluate people in Korea. In the first study, we analyzed college students descriptions of 4 types of people. People use two criteria, the life attitude and the interpersonal concern, to evaluate target person's morality. Interpersonal concern is the main criterion to consider target as immoral. Two criteria, the competence and the life attitude, are applied to evaluate target's competence. The evaluation of target being incompetent is determined mainly by the life attitude. In the second study, we randomly selected short descriptions from the three criteria; the life attitude, the interpersonal concern, and the competence. Two questionnaires were constructed to solicit evaluations of target persons from college students. In type A, we created 4 types of target people by varying the target's life attitude being either positive or negative and the competence being either positive or negative(+/-). In each type there were random combinations of four target people. In type B, the four types of people were created by varying the life attitude(+/-) and the interpersonal concern(+/-). Also, four target people were included for each type by randomly combining the criteria informations. Analysis of type A showed that the evaluations were dominated by the life attitude criterion. Only when the life attitude is positive, the competence information makes difference in evaluation. Analysis of type B showed that the life attitude and the interpersonal concern criteria are equally important, indicating the relationship-oriented cultural psychology of Korean people.

Keywords: life attitude, interpersonal concern, competence, evaluation, Korean people, cultural psychology, relationship-oriented